

## 유달산의 추억

김 영 훈

선배,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는지요? 너무도 긴 세월이 흐른 뒤라 기억 속에 아직 내가 남아있거나 할는지 모르겠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만난 때가 꼭 30년 전이니까 말입니다. 동백꽃 핀 유달산에서였지요. 잊고 있었던 그 유달산을 지난 4월 TV에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날 화면 속 유달산은 축제가 한창이더군요. 노적봉 앞 광장은 고운 백색의 한복이 강강술래 군무로 너풀거리고,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 주변에 흐드러진 동백은 예나 다름없이 붉었지요. 세월은 젊은 청년의 얼굴을 주름지게 한 대신 추억을 저장하고 있었음을 새삼 깨닫는 순간, 생각은 벌써 그 때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잊고 있었던 것은 유달산뿐만이 아니었던군요. 유달산은 30년 전 어느 푸근한 봄밤에, 감기 시작하다 엉켜버린 이야기의 타래를 솔솔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홍도 여행 후 목포에서 상행선 기차를 놓쳐 새벽을 기다리는 우리 연락을 받고 선배가 한밤에 부인과 함께 역에 달려 나왔던 것 생각나지요? 그리고는 우릴 곧장 유달산으로 안내했던 일도요. 신혼이지만 한 쌍의 아름다운 연인과 같은 선배 부부의 모습은 은근히 부럽기도 했었지요.

그 날 선배의 배려와 보살핌은 우리 일행이 새벽기차를 탈 때까지 계속되었지요. 기차를 놓친 것이 정말 잘된 일이라고 일행은 모두 얘기할 정도로 우린 낯선 곳에서의 몇 시간을 즐겁게 보낸 후 아쉽게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군요. 노적봉 아래 포장마차에서 이미 술과 안주로 충분히 속을 채웠거늘, 선배 부부는 기차 출발 전 한 아름의 맥주와 안주를 좌석 밑에 밀어 넣고서 한참이나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일행은 선배와의 만남으로 더욱 풍성해진 여행의 여운을 즐기며, 밤새 상행열차 안에서 그렇게 취해갔습니다.

선배, 그런데 말입니다. 고마움은 꼭 되갚음으로써만 의미를 가질까요? 누군가의 호의를 고맙게 간직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베풀의 기회가 왔을

때 작은 도움일망정 기꺼이 베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웃에 음식을 돌릴 때도 접시가 아닌 일회용 은박지에 담아내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씀이 뭐겠습니까? 되갚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가 아닐는지요?

내가 선배의 전화를 받은 건 그 후 4년 쯤 지난 때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전화는 없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마치 피천득 선생이 '인연'에서 "아사꼬와의 세 번째 만남은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랬더라면 선배와의 만남은 오롯이 훈훈한 추억으로만 남았을 텐데 말입니다. 선배는 전화에서, 아는 이 한 명을 전출 보내겠다면서 전입지에서도 그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게 해줄 것을 내게 부탁했지요. 물론 난 흔쾌히 답했고요.

내가 선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일이었지요. 주소만 바뀌었을 뿐 삶의 형편과 방식은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조사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은행조차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의 소득과 재산 조사는 고작 몇 가지의 공부상 확인과 민원인의 진술, 그리고 담당자의 육안 판단에 거의 의존할 뿐, 검증이란 게 사실상 어려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기존의 유지'라면 더욱 부담 없는 일이란 것도 모를 리 없었고요. 그럼에도 난 것처럼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고 말았으니, 아마도 내가 못한 탓이었겠지요.

전입해 온 그의 가구에 대해 몇 가지를 조사하자 안타깝게도 더 이상 '자격유지'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상황을 감지하고 불안한 낯빛을 보인 그에게 '미안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섰지요. 최근에서야 형편이 좀 나아진 때문인 것으로 조사의 '수위조절'을 궁리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정작 선배에게 이를 설명할 길이 막막하더군요. 이해해 줄 거란 믿음과 책망의 불안함이 교차하면서 갈등했던 것을 선배는 압니까? 빠듯한 자취생활 속에서도 오래 전 떠나온 직장 직원의 애경사까지 빠짐없이 챙길 정도로 의리를 중요시하던 나로선 적잖이 고민될 수밖에요.

하지만 결국 양심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겁니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조사서를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었지요. 명예와 양심을 양보하면서까지 돌봐야 할 가치 있는 일이란 없다는 확신이 서더군요. 적어도 당시 혈기 방장한 어느 청년 공무원에겐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먼저 전화를 건 쪽은 선배였지요. 다음날 아침, 수화기 너머 전해지는 선배의 기분은 이미 몹시 상해 있더군요. 내게 '용통성 없음'을 반복 질책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지요.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말이지요. 그러니 "죄송하다"는 말 외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배! 선배의 서운함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나의 편협한 시각과 서툴고 경직된 일처리 태도를 비난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해도, 그 이상은 뻔지 말고 삼켜야 할 말이었습니다. 선배는 전화를 끊으며 그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라도 하듯 던졌지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친구구만!"이라고 말입니다. 그보다 더한 모욕이 또 있을까요. 선배는 잊었을지 모르나, 내겐 너무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만, 그리고 지우려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바로 그 말을 끝으로 선배와 나의 관계도 매듭을 지었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 경계하는 버릇도 그 후 생겼고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내가 '호의'에 대해 결정적으로 진정성을 돌아보게 된 사연 하나를 선배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은 멀어진 내 친구에 대한 얘깁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생 시절 바뀐 집주인의 동갑내기 아들이지요. 상고를 나와 일찍 직장생활을 시작한 친구와 공무원 준비를 하는 나는 매일 아침 버스정류장에서 헤어졌는데, 그 때마다 그 친구는 전 날과 아침에 피우고 남은 500원짜리 '거북선' 담배를 내게 모두 주었지 뭐니까. 동대문 시립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내겐 하루 10개비로도 충분했지만, 그 이상 남은 담뱃갑을 건네받은 날도 많았지요. 하루 10원의 도서관 사용료 부담도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때이니, 친구의 '담배 공덕'은 내게 눈물이 나도록 크고 고마운 원조임에 틀림없었지요. 그 후 자영업자로 변신을 꾀한 친구와 지방으로 발령받은 나는 서울서 가끔 만나 옛 정을 나누며 취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정말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친구의 연락이 끊긴 지 7~8년 쯤 된 2002년 가을, 내가 대전으로 막 이사한 뒤의 일입니다. 그 친구가 사무실 전화로 연락을 해왔더군요. “부동산업을 하는 중인데, 대전의 주요 아파트 시세를 좀 조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이지요. 반가움도 잠시,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런데 친구의 요구는 수주일 뒤 다시 이어졌는데 다름 아닌, “대전에 가까운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대신 좀 잡아 두라!”라고 하는.....

그 친구는 분명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진 돈벌이가 그를 그렇게 만든 모양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친구에게 요구하는 그를 더 이상 과거의 친구로 상대할 순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조심스레 충고했지만, 그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 서운함을 표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능력이 그것 밖에 안 되냐? 왜 그렇게 배포가 없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쓴 웃음이 나왔지요. 말단 공무원에게 ‘배포’라니요. 난 친구를 잃은 것입니다. 내 탓이 큰 걸까요? 선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어야 했나요? 어쩌면 그 친구는 오래전의 그 ‘담배 공덕’을 순수한 호의가 아닌, ‘교환가치’로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선배, 앞서 하던 얘길 다시 해보도록 하지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 다시 그 때를 생각해도 당시 선배가 나를 두고 한,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친구’ 라는 말이 ‘그럴 만 했다’고 보십니까? 나의 예상치 못한 일처리로 민원인에게 체면을 구겨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 말은 분명 지나쳤습니다. 물론 상황에 적합한 비유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융통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과 다른 ‘거짓’ 조사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명예나 양심보다도 융통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진정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더구나 아직 때 묻지 않은 공무원 초년생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조각공원에 이어 서쪽 다도해를 비추던 카메라가 다시 노적봉으로 돌아왔습니다. 리포터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추스르며 노적봉의 유래를 소개하네요.

「임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 이용하였다. 이순신은 이 노적봉을 짚과 쉼으로 둘러 군량미가 산더미같이 쌓인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서 적을 공략하였다. 그 뿐 아니라 영산강에 흰가루를 풀어 쌀뜨물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왜적들이 서남해를 거슬러오다가 노적가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쌀뜨물이 바닷물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겁하여 후퇴하였다.」 라는.....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지금 다시 들어도 장군의 절묘한 기지와 배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처럼 영웅의 속임수는 때로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프로가 끝나 채널을 돌리던 중 문득 '웁거니!' 싶더라고요. 공직자의 '거짓'과 '배포'는 바로 이렇게 멋지게 써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요.

선배! 이제 그만 서운함을 푸십시오. 그리고 위로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지금 생각하니 그 때 내가 심했어. 아니, 잘못했어. 미안해!'라고요. 그래야만 상처 난 내 가슴에 새 살이 돋고, 유달산에서의 우리 만남도 빛바랜 '담배공덕'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시 자리매김하지 않겠습니까?